

풀리지 않는 한국 고대사회의 성격 논의

김종선 지음 《한국 고대국가의 노예와 농민》

양기석

충북대 교수 · 역사교육학

한국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시대구분 문제와 함께 사회 성격에 관한 문제가 무엇보다도 해명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성격은 권력구조, 정치제도, 생산관계, 계급관계, 관습, 이데올로기 등 극히 복잡다단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발전단계를 일률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성격 문제는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역사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견해와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역사의 전과정을 세계사적인 합법칙성이 관철된다는 안목하에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시대구분을 하고 각각의 사회구성 단계의 질적인 차이를 밝혀 그 발전과 이행과정의 합법성과 계기성을 구명하는 일이다.

노예론자와 봉건론자의 논쟁

지금까지 한국 고대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그 논의의 방향은 고대사회의 기본적인 생산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노예론자와 봉건론자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따라서 그 논쟁점은 직접 생산자인 농민과 노비의 존재형태, 농민의 피착취 형태, 토지소유관계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농민과 노비와 같은 직접생산자의 존재형태는 고대사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노예론자들은 그리스·로마의 고전적 노예제의 성립을 주장하는 견해와 아시아적 형태의 총체적 노예제가 존재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되며, 반면 봉건론자들은 노예제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생산 담당층을 봉건적 농노로 보고 있을 정도로 서로 대립되어 있다.

이 문제를 세계사적인 합법칙성의 관점에서 한국사에 처음 적용한 것은 1930년대 백남운이다. 그 후 남북한 학계에서 이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80년대 후반부터 시대구분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이 문제 해결에 보다 밝은

한국 고대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이 책은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성격 구명을 위해 각종 사료와 구미의 사례, 북한학계의 연구성과까지 원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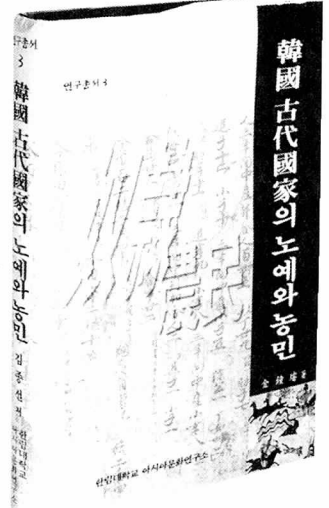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성과를 응축한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며, 또 관련용어의 명확한 개념규정과 기준 설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미의 연구성과를 폭넓게 원용한 비교학적인 접근방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확고한 문제의식과 치밀한 고증 및 구미학계의 관련 연구성과를 비교학적인 접근방식을 원용하여 한국 고대 사회경제사의 핵심과제인 노예와 농민의 역사적 위치를 비교학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이 책은 서장을 포함하여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뉜다.

문헌사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서장과 제1장은 이 책의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먼저 기본사료인 《삼국사기》의 사회경제사 관련기사를 사학사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이해하였고, 노예의 개념과 한국 고대사회의 직접 생산자는 노예가 아니라 농민이었음을 밝혔다.

이어 제2장~제7장까지는 삼국시대의 노예와 농민의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 고대사회가 노예제 사회였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노예제와 봉건제 사회설을 부정하기 위한 실증 부분이기도 하다. 즉, 노예의 발생원인으로 거론되는 전쟁포로나 범죄 및 부채 등의 경우를 들어 관련 사료는 물론 구미의 사례나 연구성과를 원용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 고대의 경우 노예제 사회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춘략문서를 통해 노예와 농민의 동태에 관해 통계학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 말엽에



적지 않은 노비와 부농층에 의해 계급분화가 촉진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신라왕조의 멸망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다음 제8장~제10장에서는 북한에서 제기한 노예제 사회론과 봉건제 사회론을 비판하고 아울러 마르크스가 언급한 소위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적용여부 문제도 고찰하여, 결국 한국 고대사회는 노예제 사회도 봉건제 사회도 아닌 중앙집권적 농촌 관료 국가임을 천명하였다.

끝으로 제11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삼국사기》를 통해 한국 고대사회가 농자정본사회(農者政本社會)임을 부연 설명하고 나서 이것이 갖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 책은 관련사료의 해석이나 방법론의

원용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름대로 성과있는 노력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첫째, 관련기사가 영성한 《삼국사기》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점이다. 부족한 문헌사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신당서》 신라전 '노동삼천인(奴僮三千人)' 기사에 대한 해석상의 비약과 허구성을 입증한 부분이 그 한 예이다. 둘째, 최근 북한학계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 고대사회 성격 문제는 북한에서 남한학계보다 일찍 검토된 바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관련 정보가 필수적인데, 필자가 이 방면 자료의 수집과 검증에 기울인 노고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셋째, 이 방면에 대한 구미학계의 사례나 연구성과를 폭넓게 원용하여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종래 관련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구미의 연구성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방면에 대한 평면적인 이해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앞으로 아직도 미개척 상태에 있는 이 분야의 연구에 이 책이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이 책의 간행을 계기로 이 분야와 관련된 문제들이 보다 더 활발히 연구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한림대출판부/A5신/509면/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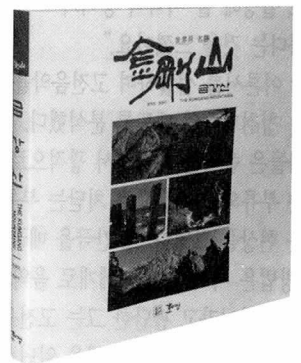
화제의 책

금강석처럼 빛나는 절경

한관수 편저 《금강산》

금강석처럼 빛나고 굳은 산이라하여 이름 붙여진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의 장엄한 광경이 사진집 속에 펼쳐진다. 비로봉에서부터 외금강의 만물상, 내금강의 만폭동을 거쳐 동해의 해금강까지 냇을 빼어갈 듯한 절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금강산의 품에 안긴 희귀생물들과 이름난 명승고적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예로부터 금강산은 성스러운 산으로 이상향을 대변하는 곳이었다. 지금도 민족의 성산으로 여겨 누구나 한번쯤 가고 싶어 하지만



함부로 갈 수 없는 금역의 땅. 사진마다 작가의 안타까운 마음까지 담고 있는 듯 하다.

호형출판사/B5변형/206면/35,000원